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5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 당 자	• 악취관리팀장 심현식 ☎440-3331 • 담당자 강주희 ☎440-33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스마트 기술로 악취 줄인다

- 인천시, 2023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 130억 규모, 3개 분야, 11개 사업 -
- IoT 기반 스마트 종합관제센터 구축, 악취 자동채취 차량 구입, 사업장 기술지원 등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스마트 광역 종합관제센터 구축, 시료자동채취장치 확대 설치 등 3개 분야 11개사업, 130억 원 규모의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사업 3개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악취관리 체계 구축,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사업이다.

그 중에서 특히 올해는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 이동식 미세먼지·악취 시료 자동채취차량 제작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악취관리 체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는 지리정보체계(GIS),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정보와 악취관리지역 등에 설치된 감시시스템

(CCTV)과 기상모니터링으로 취합된 현장 데이터를 종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악취정보를 분석해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해지게 된다.

더불어 미세먼지·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포집할 수 있는 자동 채취 차량도 제작·구매할 예정인데, 이 차량을 이용하면 기상에 따라 이동하는 악취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취약 사업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악취 종합상황실 운영 등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악취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시료자동채취장치 확대 설치, 악취관리기금을 활용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지속된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남동구 전역) 및 서북부(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악취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사업장 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상환 무이자로 융자지원된다.

그밖에 최근 주상복합 건물 등의 증가로 생활악취 민원 중 직화구이 음식점의 민원이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전기집진기, 활성탄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년간 사후관리 의무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사업장 폐쇄 시 보조금이 회수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스마트 광역 종합관제센터 구축 및 악취 배

〈이미지〉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시스템 개념도

